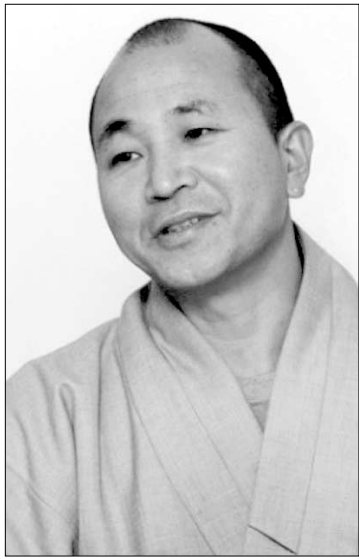


“방거사, 선의 황금시대 이끈 인물”

입멸 1200주년 맞아 '방거사 어록 강설' 발간한 혜담 스님

물을 길고 나무를 나른다고 하는 일상의 생활이 신통이고 묘한 작용이며 곧 도의 현현임을 스스로 체득하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방거사(7~808). 한국불교에서는 전통강원의 교과목인 대해 스님의 선 교과서인 <서장>에 방거사의 글귀가 인용됐지만 어록이 책으로 간행된 적은 없다. 이에 혜담 스님(경기 광주 각화사 주지·사진)이 방거사 입멸 1200주년(2008년 7월 8일)을 2년 앞두고 한국불교 최초로 <방거사 어록 강설>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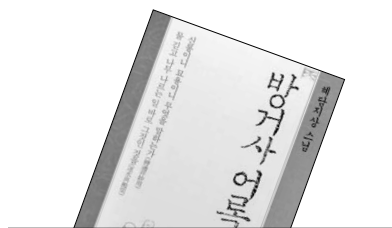
계의 스님들이 재물욕과 명예욕을 버렸으면 하는 의미에서다. 방거사는 자기의 집을 두근대나 절로 만들었을까라 하여 예 재산을 수십대의 마차에 실은 후 강숙에 버렸다. 사람들이 찾아와 재물을 불사에 쓰지 않고 강숙에 처박아 버리는 이유가 뭔지를 묻자 방거사는 '재물이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성한 불사에 쓴단 말이요'라고 답한 것에서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선불교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듯 싶은데...

—<방거사 어록 강설>을 통하여 선의 황금시대였던 당시의 선풍을 그대로 가져와 선종 본래의 바른 수행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일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선이 잘못됐다'는 것 등 교계에서 일고 있는 간화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참선 본래의 참구법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선의 황금시대와 비교해 한국불교 간화선의 문제를 지적해본다면, 화두를 위한 화두는 안된다. 몸 전체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의심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의심을 하다가보니 상기가 일어나는 것 같다.

한편 <방거사어록 강설>은 석두 마조 약산 제봉 단하 백령 보제 장자 송산 본계와 대매 대육 척전 낙포 석림 양산 곡은과 화주승 목동 좌주의 대화가 실려있다. 또 방거사의 행화, 난이삼부곡, 시계삼수, 거사의 입멸등이 소개되고 있다.



방거사 어록 강설 혜담 지상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5000원

▲방거사가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분명이 없다. 방거사가 한국불교에 있어서 왜 중요한 분인지?

—방거사는 선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초까지 마조 선사나 석두 선사가 선풍을 드날리던 시대, 마조 선사의 유일한 제자였다. 당시 유명한 선사들의 날카로운 기봉을 통쾌하게 꺾거나 때로는 당당하게 맞섰다. 그의 이런방식은 당대 불교가 선(禪)으로 특징짓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방거사가 입제선의 정맥을 잇고 있는 한국불교와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 필만대 장경에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어록을 발간하게된 계기는?

—아마도 고려시대 귀족불교의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출가자가 아닌 거사의 해탈에 등한시했던 당시 사회분위기에 무관심했다고 본다. 방거사 어록을 발간한 계기는 은사인 광덕 스님(1927~1999)께서, 방거사의 '일체의 존재와 상관하지 않는 자'라는 법문에서 불법에 대한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시며 어록을 번역해보라는 말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

▲스님이 <방거사 어록 강설>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방거사처럼 우리 한국불교

부처님, 우리아이 어떻게 가르칠까요

현직 교사가 쓴 자녀교육 지침서

'이 학원 저학원 아무리 돌리고 다그치들 자녀에게 지식은 줄 수 있으나 생각하는 힘은 줄 수가 없다. 점수는 줄 수 있으나 관용이나 자비, 인내등 인간적 품성은 줄 수 없다. 기능은 줄 수 있으나 주체적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자립심은 줄 수가 없다. 고통과 스트레스는 줄 수 있으나 여유로운 마음은 줄 수 없다.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넉넉함은 줄 수 없다. 지금의 자녀교육, 현재 방식의 사랑으로 부족한 2%를 채워야 한다.'

현직 교사이며, 문인으로 그리고 문사수법회에서 수행중인 저자 민병직씨(일산 오마초 교사는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 교육의 지혜>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키우면 자녀교육은 성공한다고 말한다. 자녀에게 부족한 2%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아이들도 불성을 가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붓다의 교육정신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자식교육을 투자나 투기적 발상으로 베풀어 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어머니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을 충족시켜준 뒤 공부방법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부를 시키지 않으며, 휴식시간을 많이 주고, 쉬운과목부터 배우도록 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부처님이 바보였던 판타카를 깨달음에 이르렀듯 각각의 근기에 따라 올바른 교육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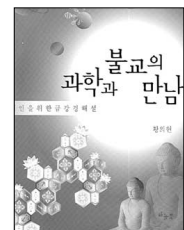
저자는 말한다. '쏟아내는 빗자루'라는 일곱단어도 못외웠던 바보 판타카도 해내는데 정상적인 지능을 소유한 아이를 잘 키워내지 못하는 것은 교육방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저자가 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교육이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넘나들며 쓴, 불자들을 위한 자녀 교육 지침서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례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응용해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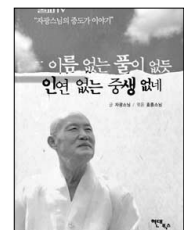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지음 윤주사 | 9800원



과학과 불교의 만남 황의현 지음 하늘북 | 1만2000원



이름없는 풀이없듯 인연없는 중생없네 자광 스님 지음 현대북스 | 1만원

서양철학으로 푼 금강경

<금강경>을 서양의 합리주의 철학과 현대과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영어로도 표현한 책이 발간됐다.

이 책 <과학과 불교의 만남>은 마음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화를 억제하거나 화를 발산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원천적으로 화를 낼 필요가 없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 사람이 윤회를 한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윤회하게 되는가를 설명한다. 즉 사

람이 일상생활에서 의견대립, 갈등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분석해냄으로써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마음만 바뀌면 어떤 직장 생활에서, 친구사이에서 화목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은 불교가 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혜안을 키워 주며 사람의 인식, 마음에 대해 새로운 눈이 뜨게 해준다.

저자 황의현씨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항공공사에 근무중이다.

선지식 24인과 만나다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 원혜 스님 엮음 | 은행나무 | 1만4000원

생활 속에서 참선과 기도,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24명의 선지식을 만난다.

최근 수년 간 불은사법회에서 법 문했던 월운 스님, 우룡 스님, 지관 스님등의 법문 가운데 선지식과 생활, 기도에 관한 법문만을 골라 묶은 법문집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선의 본질과 원리, 효능에 관한 종호 스님의 설법 이외에 참행복을 체득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지환 스님의 설법 등 '선으로 마음 찾기'를 주제로 한 11가지의 이야기와 수행에 관한 이치를 전하는 보광 스님 그리고 생명 살림의 실천을 알리는 도법 스님 등 '생활 속에서 부처되기'를 주제로 엮은 18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 묘허 스님의 지장기도와 혜인 스님의 우란분절기도 등 '기도로 수행하기'에 관한 설법 4가지도 나누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불심에 대해 일깨워준다.

자광 스님의 증도가 산림법회 엮어

"대저 사문은 어디에서 왔기에 도도하고 아만을 부리는가?"

라고 혜능 스님이 말하니 현각 스님 할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無常)이 신속하나다" 육조대사가 "어찌 태어나는 것이 없음을 체할해 안에서 빠짐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하니 현각 스님은 '가슴에 새기고 모든 법문을 듣고 뒤에 성불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말끝에 바

로 깨닫는 것'을 깨웠다.

1300년전 현각 스님이 육조 혜능대사를 만나 도를 깨우치고 지은 깨달음의 노래인 증도가. 그래서 증도는 깨달음이 가득 담긴 보물창고라고도 말한다.

증도는 267구의 견성오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불립문자 교의별전'의 현지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각 스님 자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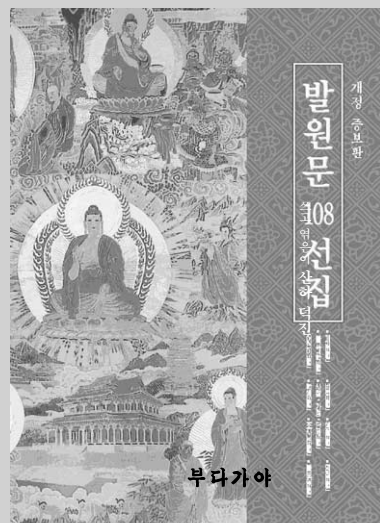
불교텔레비전에 2005년 여름 13회에 걸쳐 자광 스님(김홍사 회주)에 의해 방송되었던 증도가 산림법회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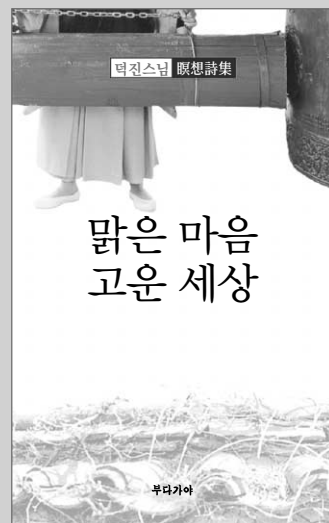
yosiamun.com 추천도서

- 김위의 삼국유사 미래M&D, 고은구, 1만5000원
 - 신심명 증도가 동국역경원, 혜원 스님, 8000원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마음산책, 김홍근, 1만2000원
 - 생명산림, 종이겨울 김재일, 1만5000원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사 현암사, 여연 스님, 1만5000원
- 도서주문 (02)2004-8219

청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보살의 노래”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께서 30여년 동안 대중교화를 위한 사찰, 청소년법회와 불교대학 등 각종 기도, 위문, 사회행사, 직장·가정의 의뢰와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이를 수지 독송하여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굳게 하여 널리 일체서원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단으로서 전국 어린이 포교와 『불교천자문』 저자로서 널리 알려진 덕진스님께서 평소 수행정진이나, 포교 활동 중에서 얻은 마음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

'더러운 마음'을 '맑은 마음'으로 바꾸어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이 한껏 풍겨나온다.

(서문 중에서 - 문학평론가 김용태)

발원문 108선집

(덕진스님 엮음 / 4×6판 / 값 6,000원)

맑은마음 고운세상

(덕진스님 지음 / 문고판 / 값 6,000원)

전국 불교서점 및 유명서점에서 철찬리 판매중!!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